

끝난줄 알았는데... AI, 또다시 급습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17일 무안서 확진...이대로 가다간 1년내내 AI 가능성

전남 닭·오리 229만마리 살처분 예산 400억원 투입돼

전남도가 다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와의 전쟁에 나섰다. 다음달 초순 AI 종식을 선언하려 했으나 지난 17일 무안에서 다시 AI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무위에 그쳤다. 사실상 이대로 가다가는 1년 내내 AI에 휘둘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발생한 'H5N8형' AI 바이러스가 폐사율은 낮으나 바이러스 배출기간이 길어 야외에 바이러스 생존 가능성이 있고, 특히 여름철임에도 새벽과 늦은 오후 기온이 섭씨 20도 이하여서 야외 바이러스 생존율이 높기 때문이다.

환경적인 여건만 맞으면 언제든 어디서

든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지금까지 방역은 물론 살처분·매몰 등에 400억원 가까이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른 비용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또 닭·오리 농가의 '고통'도, 닭·오리 가격의 고공행진도 당분간 막을 수 없게 됐다.

전남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간헐적으로 계속 발생함에 따라 농장단위 소독 철저, 가금류 이동시 검사 의무화, 농가 점검 강화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AI 종식 시까지 특별 방역대책 24시간 상황근무를 유지해 의심 신고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가동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무리 방역을 하고 이동제한 조치를 해도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AI를 사전예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소독약을 2~3일 주기로 교체하고 농장 내부는 하루 1~2회 소독하며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단(84개단)을 이용, 주1회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외부차량이나 사람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농장 진입전 차량 소독도 실시하며, 가금류 입식과 출하 시 반드시 정밀검사를 하고 이동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농장별 전담공무원 295명을 활용해 소독 등 농가 방역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장화 갈아신기, 출입차량 소독 여부, 축사 주위 생석회 도포 여부, 쥐·야생조류 출입차단 조치 여부 등도 살핀다.

도는 미신고, 신고 지연, 소독 미실시, 기록부 미기록 등 방역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보상금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AI 조기 종식을 위한 마무리 대책으로 일제 소독의 날 특별주간 운영 집중 소독 실시, 종오리농장 일제 검사(19개소), 발생농장(38개소) 사후관리 점검(소독·잔존물 처리 등), 육용 오리농장 일제 검사(124개소) 등의 방역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올해 전남도에선 4개 시·군에서 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7개 시·군 87농가의 닭·오리 229만 마리가, 전국적으로는 7개 시·도 19개 시·군에서 29건이 발생해 540농가의 닭·오리 1388여만 마리가 살처분·매몰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북 소식



순창군과 한국 물학회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업무협약을 맺고 물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와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한국 물학회 업무협약 체결

물학회 사무실 순창 이전 등 했다.

순창군과 한국 물학회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건강장수연구소에서 물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와 개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순창군과 한국물학회는 ▲한국물학회 사무실의 순창 이전 ▲순창 음용 온천수·나노비블 기술을 활용한 연계사업 공동 연구 ▲당뇨·아토피 등 만성질환 힐링 치유프로그램 공동 운영 ▲국제 기능수 학술대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순창군수는 "건강한 물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진 양 기관이 굳건한 파트너십으로 협력한다면 서로가 윈-윈하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물학회 이규재(연세대 교수) 회장은 "건강장수 고을로 널리 알려진 순창과 상호 업무 협약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순창 음용 온천수를 활용한 만성질환 힐링산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김종식 완도군수, 북콘서트로 12년 군정 '유종의 미'

회고록 '창조의 길을 열다' 출판 퇴임식 대신 기념회서 공식 퇴임

"늘 새로운 길에 나서서 도전했고, 때로는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창조의 길을 걸었습니다. 참으로 고맙지만 한편으로 행복한 여정이었습니다."

민선 3, 4, 5기 12년간 완도 군정을 이끌어 온 김종식 군수가 지난 27일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자신의 회고록 '창조의 길을 열다' 출판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를 열고 공식 퇴임했다.

김 군수는 퇴임사를 대신해 40여분 동안의 북 콘서트에서 '건강의 선' 완도 발전과 군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고군분투한 12년간의 군정을 담담하게 회고했다.

김 군수는 "12년전 완도군수 출마는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었다"며 "젊은 시절 회사생활과 공직 경험을 통해 짜놓은 정책들을 고향인 완도에서 실현해 보고 싶어서였다"고 회고했다.

이날 북 콘서트에서 군수 재임기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브랜드 마케팅, 지역의 가치발견, 영상마케팅 추진, 미래성장 동력산업 개발 등 굵직한 정책의 추진 과정을 밝히는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 군수는 "장보고라는 영웅, 수산물과



김종식 완도군수가 지난 27일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회고록 출판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를 갖고 있다.

함께 한 행복한 동거였다. '세일즈 행정', '벤처행정'을 펼쳐 농·수산물 판촉을 활성화하고, 관광객을 불러 들였다"면서 "완도라는 지역의 가치를 들고 떠났던 '세일즈 행정'의 마지막 화룡정점은 국제 해조류 박람회였다"고 피력했다.

임기를 마친 김 군수는 "당분간 휴식을 취하고 싶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식 군수는 대통령 근정포장을 비롯해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장상,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대상,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경영자상, 대한민국 최고 목민관상 등을 수상했고, 미래를 여는 혁신인물로 선정된 바 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남도 대표 전통술에 강진 '청세주' 선정

전남도는 29일 "대표하는 남도 전통술로 강진 병영주조장(대표 김건식)의 '청세주'(사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병영주조장이 위치한 강진군병영면은 조선시대 호남지방과 제주도를 방위하던 전라병영성이 위치한 요충지로, 조선 태종 때 축조된 전라병영성은 동학농민전쟁으로 불타고 폐망되기까지 조선시대 500년간 전라지역 육군의 총지휘부였다.

이러한 지역의 역사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주조장이 병영주조장이다. 병영주조장 김건식 대표는 57년간 오로지 좋은 술 만들기를 고집해온 장인으로, 청세주(靑世酒)는 '세상을 푸르게 하는 술'이란 뜻을 지녔다.

지난 2001년에 처음 출시돼 희석식 소주가 장악한 술 소비시장에도 대중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 보통 약주는 알콜 함량이 12%인데 비해 청세주는 18%다. 이는 특별한 기술과 숙련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100% 국내산 햅쌀을 전통방식으로 발효시켜 여과와 살균처리 과정을 거쳐 오랜 시간 숙성시켜 향이 은은하고 숙취 부담이 없으며 2년 이상 두어도 변하지 않을 정도로 유통기한도 길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읍 칠보물테마 유원지, 내달 5일 개장

정읍시는 어린이 물놀이 시설인 칠보물테마 유원지를 7월 5일 개장한다.

지난 2010년 개관한 이 물놀이 시설은 5만2487㎡의 부지에 종합 물놀이장과 수족관, 야생와 관찰원, 수생식물원, 다목적 광장 등을 갖춰 인근 전주와 광주·전남 지역에서까지 피서객이 몰린다.

보통 7월 중순에 문을 열지만 올해는 더위가 일찍 찾아와 개장을 보름가량 앞당기기로 했다.

5일부터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문을 열고, 18일부터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물놀이객을 받는다. 개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입장료는 12세 이하 3000원, 13~18세 4000원, 성인 5000원이며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등은 할인 혜택을 준다.

정읍시 관계자는 "피서객이 안전하면서도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불거리도 확충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정읍=백기섭기자 parkks@

남원 양파 첫 해외 수출로 국내가격 하락 위기 극복

남원산 양파가 첫 해외수출됐다.

남원시와 남원농협에 따르면 남원농협 육묘장에서 공동선별을 통해 지난 26일 대만으로 48t을 첫 수출선적한 데 이어 7월말까지 900여t을 수출할 계획이

다. 시와 남원시 조합 공동사업법인인 양파 가격하락을 예상하고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국내외 바이어와 접촉한 결과 대만수출을 성사시켰다.

이와 함께 가공용 양파 200여t을 관내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납품하기로 협의 중에 있어 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백기섭기자 bs8787@

한빛타워 분양/임대 비교할수록! 따져볼수록!

위치 가격 수익성 넘버원!

권/칭/업/종

- 1층 금웅권, 약국, 커피숍, 안경점, 24시 편의점 등
- 2층 인과, 가정의학과, 미용실, 대형매일리스토람 등
- 3층 소아과 내과, 치과 등
- 4층 각종학원 등
- 5층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성형외과 등
- 6층 보험회사, 각종사무실
- 7층
- 8층 스카이라운지, 대형웨트니스센터 등

나주혁신도시내 중심 상권 프리미엄 빌딩

한빛타워 투자포인트

- 투자의 안전성** 신탁회사(아시아신탁) 자금관리로 수분양자 보호
- 합리적인 분양가 실용적인 설계** 인근 상가빌딩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 높은 층고(4.2m~5.4m)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전용률 극대화로 수분양자 이익실현(1층 66.9%, 2층~4층 71.44%)
- 뛰어난 접근성** 혁신도시 핵심상권에 위치하여 고객출입객이 우수한 프리미엄 상가 5층에 스카이가든을 조성하여 운동, 휴식공간으로 활용

매주 투자설명회(수요일 13:00, 토요일 14:00, 분양사무실)

주식회사 오 늘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010-5587-3080

시행: 한빛가림(유) 책임사공사: 견해종합건설(주) 신탁사: 아시아신탁

한빛타워 분양사무실

우정사업정보센터 국립전파 연구원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중양호수공원